맥베스의 묵직한 사투리 대사 비장미가 뚝뚝

연극 '맥베스 411' 프레스콜 현장

"인간의 권력욕과 파멸 그린 작품 관객들 자기반성 함께 할때 이해"

문화전당·광주시립극단 공동제작

14·15·16일 문화전당 예술극장

4일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맥베스 411' 프레스콜 현장에서 타이틀롤을 맡은 안석환과 배우들이 연기하고 있다.

"나가 있고 이녁이 있는데 어떻게 실패할 수 있다요."

"임금이 이 소리를 듣고 일어나불면 좋겄네. 아, 미치겄네."

왕을 죽이는 '거사'를 감행하라며 맥베스를 다그치는 레이디 맥베스의 목소리는 은밀하지만 집요하다. 왕을 해치워버린 맥베스는 환청에 시달리고, 그의 표정에선 깊은 고뇌가 느껴진다. 이어지는 장면. 젊은 무사들과 한 무리를 이룬 맥베스가 살인을 앞두고 묵직한 대사들을 쏟아낸다. 맥베스역의 안석환의 연기는 단연 발군이다.

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뜰리에에서 열린 '맥베스 411' 프레스콜 현장은 열기로 가득했다. 짧은 10분 동안의 시연이었지만 사투리 버전 대사와 몸짓, 음악 등이 어우러지며 완성본에 기대감을 남겼다.

문화전당과 광주시립극단이 공동제작한 '맥베스 411'(14일 오후 7시30분, 15일 오후 3시·7시30분, 16일 오후 3시 전당 예술극장 1)은 셰익스피어의 대표 희곡을 '전라도 사투리' 버전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 작품이다. '411'은 영국에서 초연 후 411년이 지난 '현재, 이땅에서' 다시 공연된다는 의미를 담았다.

인간의 권력욕과 걷잡을 수 없는 욕망, 탐욕, 그리고 파멸을 그린 '맥베스'는 원래 스코틀랜드가 배경이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오는 길에 세 마녀에게서 왕좌에 오를 것이라는 예언을 들은 충성심 강한 최고의 전사 맥베스는 욕망에 사로잡힌다. 그의 아내는 탐욕의 달콤한 속삭임을 불어넣고 정의와 야망 사이에서 고민하던 맥베스는 결국 일을 저지른다.

사투리 버전으로 각색한 터라 이번 작품에서 맥베스는 무장 맥, 레이디 맥베스는 육비, 세 마녀는 무당으로 변신했다.

시연 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연출을 맡은 이해제씨는 "이 작품의 포인트는 한마디로 비장미"라고 말했다. "맥베스라는 인물은 보통 우리가 예술 작품에서 추구하는 '감동'과는 조금 다른 지점에 있다. 이 작품을 보는 관객들의 통렬한 자기 반성이 함께할 때 이 인간을 연민하고 이해하게 될 거"라고 말했다.

작품 제작을 제안하고 초기 각색 작업까지 진행한 안석환은 "오래전 공연한 '리처드 3세'가 '순수 악'을 그린 작품이라면 맥베스는 '악'에 대해 좀 더 다양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으로 드라마틱한 요소가 녹아 있다"고 말했다.

클래식 작품을 사투리로 녹여내는 게 배우에게도, 연출에게도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인터뷰에서 느낄 수 있었고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남도 지역 특성과 정서를 담은 사투리로 비장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어요. 안석환씨가 '남자충동'에서 보여줬던 그런 비장미와 맞아 떨어지는 지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서양 작품을 번역한 대사가 갖는 리듬을 살리는 한편 그 리듬을 전라도 말로 바꿀 때 갖게 되는 '가벼움'이라는 고정 관념 대신 진중함, 긴박함, 비장함을 살리려 노력했습니다."

이해제 연출은 "전라도 사투리를 쓰기는 하지만 장소 등을 한정할 경우 작품의 맛이 묻힐 것 같아 때와 장소가 모호한 어느 시점으로 잡고 작품을 만들었다"며 "무대, 의상, 음악 역시 최고의 퀄리티로 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투리라고 다 똑같은 사투리가 아닐터.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문지기 역의 지역 배우 한중권은 "가장 하층민의 언어를 표현하기 위해 무식한 사투리를 구사한다"고 말했다.

큰 극장을 채울 몸짓 언어도 중요하다. 움직임 연출을 맡은 김윤규는 "맥베스의 심리적 묘사가 많은 작품이라 배우를 서포트하고 코러스와의 앙상블까지 염두해 두며 동작을 짰다"고 말했다.

'레이디 맥베스'라는 작품이 있을 정도로, 맥베스 부인은 강렬한 인상을 주는 캐릭터다. 배우 서지유씨는 "전라도 사투리로 표현하는 게 어렵기는 하지만 내 감정 그대로 때론 속삭이고 때론 절규하는 등 '연기 낙차의 변화'를 통해 인물을 표현하려 한다"고 말했다.

안석환은 "이번 작품은 '메이드 인 광주'로 지역 문화가 서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동반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며 "기회가 닿으면 체홉 등 다른 클래식 작품들도 여러 지역 사투리 버전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작품에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김종진·박영국·채민석·조유진·김수원·조형일·이승현·박진·박상하씨 등 20명이 출연한다.

티켓 가격 5만원, 3만원, 1만원. 문의 1899-5566. www.acc.go.kr.

/글·사진=김미은기자 mekim@

'바늘자리에 핀 꽃'… 정경희 침선 작품전

6~9일 영암한옥박람회

바느질로 한국 전통미를 표현하는 침선(針線) 전시가 열린다.

수향 정경희 작가가 6일부터 9일까지 영암한옥박람회에서 '바늘자리에 꽃이 핍니다'를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특히 이번 전시는 광주 수피아여고에 재직하고 올 2월 정년퇴직한 정 작가에게 40년 교사생활을 마무리 하는 자리다.

작가는 전시에서 '꽃신들의 행복이야기', '행복바구니', '행복화원' 등 행복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수저집, 인두판, 조각보, 노리개, 버선, 꽃신 등 침선으로 꾸민 다양한 생활용품을 만날 수 있다.

조선대 미술교육학과를 졸업한 정 작가는 남농 허건과 아산 조방원에게 한국화를 사사하고 1980년대 어머니 윤판임 여사에게 침선을 배웠다. 한국화를 작업 도안에 응용한 정 작가 작품은 회화적인 분위기와 함께 현대적으로 해석한 전통 오방색이 특징이다.

'이 행복한 봄날' 연작은 단원 김홍도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그네 뛰는 여인 등을 묘사한 작품이다. 선명한 붉은색 치마와 초록 나뭇잎을 통해 색채 대비를 강조했다.

'행복 화원'에는 나팔꽃, 포도, 모란 등을 수놓았다. 꽃과 나비가 어우러지며 정 작가가 추구하는 이상 세계를 담았다.

'행복바구니'는 실용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작품이다. 꽃 문양으로 옆면을 장식하고 새 형상을 바구니 뚜껑에 달아보는 재미를 더했다.

그밖에 '행복한 참꽃마리', '행복 황금용', '문살박이 연꽃' 등 세련미가 엿보이는 작품을 출품했다. 문의 061-470-284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행복한 참꽃마리'

문화전당 '어린이 그림 그리기' 참가자 10~28일 모집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참가자를 10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날을 맞아 열리는 ACC 어린이·가족문화축제 '하우펀3(5월 3~28일)' 프로그램 중 하나로 기획됐다.

'예술놀이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놀자!'를 주제로 5월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문화전당 내에서 진행된다. 행사 당일 지급받은 8절지 도화지에 어린이들이 각자 가져온 그림재료로 ACC를 주제에 맞게 표현하면 된다.

유치부(5~7세), 초등저학년부(1~3학년), 초등고학년부(4~6학년)로 나눠 진행한다. 심사를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상과 아시아문화원장상 등 10개 부문 37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작품은 ACC 홈페이지(www.acc.go.kr)와 ACC 어린이문화원에 전시되고 모음집으로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입상 어린이들은 어린이문화원 문화교육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선착순 500명 모집. 홈페이지(www.acc.go.kr) 참조. 문의 062-601-4718.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한경희 작 '자아의 성'

김진·한경희 작가 초대 옥과미술관 30일까지 기획전

도립 전남옥과미술관이 오는 30일까지 올 첫 기획전 '통제된 상태'를 연다.

이번 전시에는 인체드로잉 작업을 하는 김진 작가와 직물드로잉 작업을 하는 한경희 작가가 만난 새로운 예술세계를 보여준다.

전시장 벽면에는 김 작가가 내면의 감정을 즉흥적, 유희적 표현방법으로 풀어낸 인체드로잉 광목천을 길게 부착한다. 전시장 중간에는 한경희 작가가 직접 천을 염색하고 재봉해 천막 형상으로 만든 '자아의 성'을 배치한다. 두 작품은 서로 어우러지며 현장성과 공간성을 선사한다.

김씨는 호남대 미술학과에서 서예를 전공하고 문화예술경영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붓다전', '인월전' 등 개인전 2회를 개최했다. 한씨는 추계예술대학교 동양화과와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퍼포먼스, 설치, 회화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1-363-727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M갤러리 대관안내
▶기본대관기간 : 7일(일주일 단위)
▶실 전시 벽면 길이 : 약 46 M
▶개관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 10:00~17:00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jinhan-shona.blog.me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222-0072, 226-5800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맨션 1층)
아프리카 숀나조각 앙코르전시회 – 500여점 전시 –
■장소 :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상설전시관